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대림절 앞두고 수단 교회 두 곳 훼손…기독교 공동체 불안 고조**



Sud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Port Sudan

수단 최대 항구도시 포트수단에서 11월 26일 두 교회가 연달아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세계기독연대(CSW)는 계획된 공격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단 복음주의 장로교회 외벽에는 이슬람 신앙고백 샤하다와 꾸란 구절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고, 정교회 외벽에도 “알라는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동일한 방식으로 쓰여 있었다.

CCTV에는 범인이 동행자들과 차량에서 내려 교회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두 사건 모두 낮 시간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났다. 두 교회는 수단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처 중 하나로 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해 있음에도 지역 당국과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동체 내부 긴장 고조를 우려한 교회 지도자들은 공식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외벽 낙서를 덧칠해 감췄다.

세계기독연대 스콧 바우어는 “대림절을 앞두고 수단의 가장 오래된 기독교 예배처 두 곳이 공격받은 것은 공동체의 취약성과 불안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며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처벌해 기독교인의 안전한 예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단 북부 주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여러 형태의 차별을 받아 왔다. 특히 누바산맥 출신 기독교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다르푸르 아랍계 주민들이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RSF)과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으며 차별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모를 기준으로 북부 출신 여부를 판단해 이동을 제한하는 ‘낯선 얼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서부 수단 출신 주민들이 임의 구금, 불공정 재판, 비상법을 통한 사형 선고까지 겪는 일이 발생했다.

수단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이재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약 1,200만 명이 집을 잃고 3,00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 2023년 4월 수단군(SAF)과 RSF 사이에 무력 충돌이 시작된 뒤,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 만 명이 실향민 상태이며, 해외로 피신한 난민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난 상황이다.

또 여러 사회적·민족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 정책이 지역 사회의 갈등과 혐오 표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트수단의 교회 훼손 사건도 이러한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디모데후서 1:12)**

하나님, 대림절을 앞두고 교회 외벽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불안을 조장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무슬림들의 악행을 끄지 어 주십시오. 박해와 차별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수단 교회를 축복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영광스러운 복 음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전으로 신음하며 실향민이 된 수많은 영혼이 하늘의 열쇠를 가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 향폐한 땅에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스리랑카 홍수·산사태 사망자 132명으로…176명 실종

스리랑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디트와’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사망자가 132명으로 늘었으며 17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당국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난관리센터는 이 같은 인명피해 외에도 약 7만8,000명이 집을 떠나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당국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지역에서 밤사이에 산사태가 발생한 모습이 올라왔다. 지난주부터 스리랑카는 폭우와 강풍 등 극심한 악천후에 시달렸다. 특히 28일부터 중앙 고산지대의 차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대부분의 저수지와 하천이 범람하고 바위와 진흙, 나무가 도로와 철로 위로 쏟아져 내려 여객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주요 도로를 폐쇄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흘러내린 물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던 수도 콜롬보 주변 지역까지 밀려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급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관공서도 휴업시키고 각종 시험 일정도 연기했다. ABC뉴스는 “스리랑카의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나기와 강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추가 홍수 및 산사태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인접국인 인도는 구조대원 80명으로 이뤄진 수색 구조팀 2개를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보내왔다고 콜롬보 주재 인도대사관이 발표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시편 69:15)**

하나님, 지난주부터 사이클론 디트와로 인한 악천후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스리랑카를 주께 의탁 드립니다. 특별히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남아 있는 지역을 다스려 주셔서 큰 물이 이들을 휩쓸거나 깊은 웅덩이가 그 위에 덮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스리랑카에 함께하사 진리에 목마르며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발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인생이 반드시 영접해야 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얻게 하소서.

### ▲ 나이지리아, 예배 중 납치됐던 성도 38명 구출

나이지리아 쿠라주 에루쿠의 그리스도사도교회(Christ Apostolic Church)에서 예배 중 납치됐던 신자 38명이 정부와 군·치안 당국의 합동 작전으로 석방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무장괴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예배 중 이던 교회를 급습해 총격을 가해 신자 여러 명이 살해됐으며,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신자가 납치됐다. 사건 직후 공유된 주일예배 영상에서는 설교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를 저주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번 작전에는 국가안보보좌관실, 국가정보국, 육군, 경찰청, 해외정보국 등과 대통령 지시로 4개 특수경찰팀이 투입됐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납치범들이 몸값으로 처음에는 1인당 1억 나이라(약 6,900만 원)를 요구했으나, 이후 2,000만 나이라(약 1,400만 원)로 낮췄다”고 밝혔다. 공격 세력은 풀라니 무장단체로 지목됐으며, 납치 장면은 영상으로도 확인됐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로마서 8:35)**

하나님, 지난달 무장괴한들의 습격으로 납치된 나이지리아 성도들을 구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도 납치되어 풀려나지 못한 모든 이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값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이를 행하는 무장단체를 꾸짖으사 악한 계획이 도말되게 하시며 탐심과 정욕을 부추겨 죄의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여 주소서.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에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이지리아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믿음을 더하사 승리하는 예수교회로 이들을 굳건하게 하소서.

##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기독교 지도자, 무슬림 정권에 수개월째 억류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CSI)가 시리아 정교회 소속 지역 지도자이자 사다드 전 시장인 술레이만 칼릴의 장기 구금 사태를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을 촉구했다. CSI에 따르면 HTS(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정권 보안요원들은 2025년 2월 8일 그의 자택을 급습해 무기 수색을 실시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칼릴은 곧바로 구금됐고, 그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기소·심문·변호인 접견도 허락되지 않은 채 홈스 교도소에 감금돼 있다. CSI는 이를 “정부 주도 납치이자 법적 권리의 완전한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족과의 연락 또한 극히 제한돼 건강 상태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술레이만 칼릴은 사다드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시리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 지역 주민을 보호한 지도자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2012년 지방선거를 통해 사다드 시장에 선출됐으며, 2013년과 2015년 지하디스트 조직의 대규모 공격 당시 방어전을 조직해 수백 명의 주민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영향력은 아사드 정권의 견제를 불러 2016년 시장직에서 강제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CSI는 “2013년 사다드를 공격한 세력이 현재 정권”이라며, 칼릴이 오늘날 표적이 된 이유가 과거 기독교 마을을 지켜냈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HTS 집권 이후 시리아에서는 소수종교의 안전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정권 초반에는 보호를 약속했지만, 3월 이후 알라위파·드루즈 공동체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잇따랐고, 6월 다마스쿠스 교회에서는 미사 중 자폭 공격으로 25-30명이 사망했으나 정부는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 또한 장례식 참석을 거부해 기독교계의 우려를 키웠다.

CSI는 칼릴 구금이 종교·정치적 억압의 흐름 속에 있으며 “새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의 공개적 영향력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CSI는 미국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시리아 정부에 항의 및 구명 활동을 전개하며, 국제적 압력이 석방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베드로전서 4:14)**

하나님, 시리아 내전의 혼란 속에서도 수백 명의 주민을 보호하며 마을을 지켜낸 지도자를 표적 삼아 아무런 혐의도 없이 수개월째 억류한 시리아 현 정권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칼릴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테러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몸 된 교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안양대, 기독교교육과 비기독교인 교수 배정·채플 선택 추진…학생들 강력 반발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교육과에 비 기독교인 교수를 임명하고, 필수였던 채플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일 보도했다. 지난 9월 임명된 A 교수는 기독교교육 전공자가 아니며 신앙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학생들은 그가 기독교 전통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독교교육과 학생회는 “전공 비전공자 배정은 학과 정체성과 전문성을 해손한다”고 성명을 냈다. 논란은 채플 제도로 번졌다. 학교 측이 채플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꾸려 하자, 학생들은 “기독교 대학 정체성의 포기”라고 반발했다. 작년 진행된 채플 수호 서명에는 2,500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 대순진리회 관련 인사의 이사 참여와 기부 등 경영 개입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양대는 여전히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19:1-2)**

하나님, 전도사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그 정체성과 기준을 흐리는 행보로 인해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슴 아픈 소식에 주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주님, 기독교 전통을 조롱하며 타협의 도전 속에 놓인 이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이 학교에 더욱 세워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 한국 교회가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깨어있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께서 가르치신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대한민국이 얻게 하소서.

### ▲ 인도, 모든 새 스마트폰에 정부 보안앱 강제 탑재…개인정보 우려 확산

인도가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에 삭제가 불가능한 국영 사이버 보안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명령,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뉴시스가 BBC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전날 공개된 해당 명령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90일 이내에 모든 새로운 기기에 정부의 ‘산차르 산티(Sanchar Saathi)’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통해 사용자는 기기의 단말기고 유식별번호(IMEI) 확인, 분실 또는 도난 당한 휴대폰 신고, 사기 의심 통신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통신 사이버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프리덤 재단’은 “이는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제어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국가 지정 소프트웨어의 기본 탑재 수단으로 만들려는 것”이며, 앱을 비활성화할 수 없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앱이 다른 앱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안장치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수천 건의 SNS 계정 차단, OTT·웹사이트 검열 등 온라인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정부 명령에 따른 콘텐츠 차단 사례가 급증해 시민단체는 감시 인프라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시편 72:2)**

하나님, 사이버 보안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감시와 통제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이 국가 앱 설치가 철회되게 하옵소서.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는 모디 정권을 꾸짖어 주시고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위정자들에게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또한 소수 종교에 대한 규제가 더해가는 이때 이 일이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충성된 교회들을 통해 인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부흥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의 중독 회복 사역, 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르비아 노비사드에서 중독과 노숙으로 삶을 잃어가던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재활 사역을 통해 회복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세르비아 기독교 공동체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재활센터’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노숙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세르비아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한 약 6,000명의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이 사역을 이끄는 주축에는 듀샨 베레지(일명 ‘베라 목사’)가 있다. 한때 알코올과 본드 흡입에 빠져 길을 잃었던 그는 1994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당시 세르비아에는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의료적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그의 회복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그는 기도 후 단숨에 술과 약물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고, 이후 32년간 단 한 번도 다시 손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적 의지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공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코소보 전쟁 이후 세르비아는 저가 헤로인의 대량 유입으로 중독 문제가 급증했다. 베라 목사는 친구들이 중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2008년 교회와 함께 재활센터 설립을 결정했고, 초기 7명을 돋는 소규모 사역이 ‘틴 챌린지’ 모델을 참고 한 영적·정서·생활 회복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최근 헤로인 사용은 줄었으나 코카인, 부프레노르핀, 합성 헤로인 등 혼합 중독이 늘어 회복 과정은 더 복잡해졌다.

센터는 도시와 시골 지역 건물 두 곳에서 남성 중독자를 지원하고, 여성은 타 기관과 연계해 돋고 있다. 또한 ‘핸드 포 어 프렌드’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인을 관계 중심으로 돌보며, “다시 사람 대접을 받는 경험”을 제공한다. 정부 지원은 없어 운영비의 약 75%만 자체 사업으로 충당되고, 교회는 운반 서비스·장비 대여 등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센터를 거친 이들은 교회 개척자·의사 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며, 교회는 더 많은 도시에 재활센터 설립과 중독 초기 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베라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6,19)**

하나님, 약물중독과 노숙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하는 세르비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재활센터를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며, 중독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확증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이들을 증인 삼으사 자신과 같이 황폐하고 무너진 심령에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러시아 납치한 우크라 어린이, 최소 2명 북한으로 이송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납치한 어린이 중 최소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지역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카테리나 라셰프스카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네츠크 출신 12세 ‘미샤’, 심페로풀 출신 16세 ‘리자’가 “고향에서 9,000km 떨어진 북한의 송도원 캠프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해당 캠프는 북한 강원도 원산에 위치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추정되며,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해 1960년 개장한 대규모 청소년 시설이다. 그는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파괴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 가담한 북한 군인을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점령지에서 1만 9,546명의 아동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미국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HRL)는 최대 3만 5,000명, 일부에서는 15만-30만 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이사야 49:15-16)**

하나님, 러시아군이 납치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심지어 북한의 청소년 시설에까지 강제로 보내졌다는 소식에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힘없는 아동들을 악용하는 무정하고 패역한 러시아와 북한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부모와 고향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상황과 환경에 놓인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항상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또한 평생에 꼭 만나야 할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사 가장 안전한 여호와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 ▲ 아이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400건의 여성 대상 폭력 발생해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이티에서는 총 7,400건 이상의 여성 대상 범죄가 신고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성폭력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약 3,700건)을 차지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 중 60% 이상이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는 피란민이라는 점과 지금까지 피해 여성 약 83만 명 가운데 단 7%만이 적실한 도움을 받았다는 점이다. 현재 아이티는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24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어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폭력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법률 지원, 안전한 공간 마련 등의 총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시급하다. 현재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녀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에스겔 16:6,60)**

하나님, 아이티에서 여성 관련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안타깝고 처참한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피란과 째주림, 폭력과 트라우마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안에 세워진 존귀한 주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산 소망이 아이티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